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사)생명존중 지구촌연대 뇌건강치과 시연연구소 대표

5월이 오면 광주는 다시 묻는다. 금남로에 피어나는 꽃향기는 해마다 아프도록 비슷하지만,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은 늘 같지 않다. 어떤 해에는 깊은 슬픔,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과 다하지 못한 시대의 책임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5월의 광주는 화석처럼 굳어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를 흔들고 미래를 깨우는 살아 있는 이름이다.

인류의 구강은 단순히 먹고 숨 쉬는 기관을 넘어, 함께 웃고 말하며 관계를 맺는 사회적 소통의 통로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치아 상실과 구강 염증은 이러한 기능을 무너뜨리고 삶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오늘날의 치의학이 손상된 구강안면 구조 회복을 넘어 뇌와 전신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자존감까지 살피는 생명존중 '뇌건강 치의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시대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사회적 순환이 끊기면 생명력은 서서히 약해지듯, 기억이 현실과 단절되면 공동체의 맥박 또한 희미해진다. 5·18에 대한 추모는 마땅히 깊고 엄숙해야 한다. 그러나 애도에만 머문다면 그 정신은 현실의 삶과 멀어진 채 박제되기 쉽다. 뇌건강 치의학이 생명전체의 연결을 회복하려는 철학이라면, 광주 정신 역시 오늘날의 삶과 제도과 역동적으로 연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XVI

-창조적 파괴(2) 5월의 광주정신, 이 뭐꼬?

결하면서 시대를 밝히는 힘이 돼야 한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화두는 "이 뭐꼬?"다. 본질을 향해 끈질기게 묻는 이 질문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고, 안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민주·인권·평화라는 단어로만 5월을 이해하고 단정하는 순간, 그 진정한 의미는 망각되기 쉽다.

이제 "광주정신 속의 나"가 아니라 "지금, 나의 광주정신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나의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은 이웃의 아픔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나의 평화는 누구의 두려움을 덜어주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무엇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묻는 일이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오래 반복돼 굳어버린 말과 이해관계에 갇힌 상상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광주정신의 파괴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바꾸는 언어와 제도로 다시 살리자는 뜻이다. 치의학이 치아 중심 치료를 넘어 사람을 돌보는 방향으로 확장되듯, 광주정신도 기념의 언어를 넘어 실천의 질서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마주한 전남·광주 상생과 통합의 과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기록권과 경계를 앞세우기보다, 지역의 생명력과 공공의 미래를 중심에 놓는 일은 오늘날의 광주정신을 시험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험도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그곳의 혁신은 기술만의 산물이 아니었다. 히피 반문화에 기반한 자유와 실험, 연결의 문화가 대학과 산업, 도시의 생태계와 만나면서 인터넷, PC, 스마트폰,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문화적 토양이 됐다.

스마트 폰을 창안한 스티브 잡스(1955-2011)의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 역시 그의 '이 뭐꼬?'였으며, 낡은 상식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질문하라는 요청이었다. 배고픔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한 갈망이었고, 어리석음은 익숙한 질서에 길들지 않으려는 용기였다.

광주정신도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한다. 광주의 배고픔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와 공공성, 연대를 향한 갈망이어야 한다. 광주의 어리석음은 불의와 배제, 모욕 앞에서 지혜로운 시민적 용기여야 한다. 따라서 배고픔과 어리석음이 내일의 힘이 되려면 오늘을 푸는 창조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광주에는 이미 그 가능성이 있다. 대동의 연대와 공공성이라는 자산을 공공의료, 돌봄, 에너지 전환, 생태환경,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모바일 같은 기술 의제와 연결될 때 5월의 기억은 희망의 설계도가 된다. 대학은 그 도전과 실험의 중심이어야 한다. 청년의 연구와 창업, 기술과 돌봄의 생태계 속에서 광주정신이 다시 작동할 때 차세대 문명 사회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다.

5월의 광주정신, 이 뭐꼬? 그것은 과거에 완성되어 감춰버린 정답이 아니다. 세대를 건너며 새롭게 묻고 살아내야 할 질문이다. 기억의 단절을 잊고, 그것을 혁신의 생태계로 키워낼 때 광주정신은 다시 숨을 쉰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 시민의 몫이다. 위대한 정신과 새로운 기술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만날 때, 그 힘은 깨어 있는 시민의 연대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자치칼럼



서순복

포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

주민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그러나 주민자치 현실에서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르슈타인의 주민참여 사다리론에 따르면 현실의 참여는 대부분 형식적 참여 수준에 머무르고, 정책결정권을 주민기구에 위임하거나 주민이 행정과정을 통제하는 주민권력의 단계에 아직 멀었다. 주민주권시대, 주민들이 주도적인 관찰자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주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능감', '접근성', 그리고 '교육문화' '리더 양성'이라는 네 가지 축이 맞물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효능감의 경험을 시민들이 맛보아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다. 참여의 적은 참여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패배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제안이나 투표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왜 반영되지 못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의견이 반영돼 마을이 바뀌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자발적 주민참여의 성공 조건

면 큰 동기부여를 얻을 것이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먹어 봐야 맛을 알 듯이 말이다. 처음부터 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쓰레기 투기 구역에 꽃밭을 만들거나, 어두운 골목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먼저 경험하게 되면 시민들은 달라질 것이다.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돼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접근성이 중요하다.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기술과 정보가 필요하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여는 '시간적 비용'이 드는 일인바, 참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고도화가 그 방법이다. 휴대폰 하나로 간단하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이나 온라인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 데이터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이나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하여 제공해야 한다. 아는만큼 참여할 수 있기에, 아는 것이 없으면 참여도 어렵다.

셋째, 교육과 문화의 차원에서 비판적 사고와 숙의를 일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깊이 있는 참여는 교육과 문화에서 나온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토론과 협상을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생태, 신뢰, 요리, 탄소제로, 죽음준비 등 일상의 소소한 주제에 대해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알아가고

토론하고 정리해가면서 학습동아리를 이뤄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함께 모여 의논할 때,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숙의(Deliberation)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이다. 동호회, 독서모임 등 소규모 단위의 시민 모임들이 사회적 의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거창한 공청회보다는 동네 카페, 마을 정자, 마을회관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사회'나 '토크 콘서트' 형태 같은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

넷째, 마을 활동가 같은 핵심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조력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마을의 미래 모습이나 마을의 역사, 공동체 의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 소통 기법이나 갈등 조정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을 활동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지지할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의 핵심은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으며, 내가 사는 동네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은 '주도'하는 역할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2천500년 전의 고전에서도 설파하고 있다. 도덕경 17장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그것을 해냈다고(功成事遂百姓謂我自然)"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社說

지방선거·미니총선 후보자 등록, 본선 레이스 가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전남광주 특별시장 선거에 5명이 신청했다. 통합 교육감은 4명,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선에는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광주·전남 지역은 기존 시·군·구 단체제, 지방의원까지 모두 78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은 광주 서·남구정장을 비롯해 80명이며, 이중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6·3선거에서는 441명을 선출한다. 통합 특별시장 1명, 교육감 1명, 광산을 국회의원 1명, 광역의원 9명, 기초단체장 27명(광주 5, 전남 22명), 기초의원 320명(광주 73, 전남 247명) 등이다. 사전 투표일은 29·30일 이틀간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든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21일 개시되며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자격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앞둔 첫 선거다. 민주당은 통합 지방정부를 책임질 적임자를 내세우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무소속 후보들은 일당 독점 견제, 특별시 균형 발전, 노동·농

어촌·복지 정책 등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광주·전남 정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는 광주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돼 민주당과 야권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행배 전 의원이 특별시장에 출마해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전락공천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과 진보정당, 무소속까지 모두 나선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정당의 공천 없이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권력 구조와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치행사로 규정되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의 새 시대를 열 준비된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의 회복에 주력해 주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능력을 갖춘 일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들어섰다. 민주당 대 비(非)민주의 대결이다. 여당의 우세 속에 야권은 공약 발표와 유권자 접촉 확대로 존재감 부각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원효계곡 상가 철거 무등산 생태 복원 탄력 불여야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에 위치한 원효계곡 일대 노후 상가 철거가 본격화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3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 마을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상인 일부가 반발하면서 지연됐는데, 최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상가 영업 등으로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생태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원사무소는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워진 건물을 우선해 철거하는 등 탐방객들의 불편 최소화에도 유념해야 한다.

해발 1천187m의 무등산은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로 2013년 3월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서석대·입석대·광석대 등 수직 절리현의 명석이 석색을 두른 듯 치솟아 장관을 이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하늘다람쥐·오름난초 등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계를 자랑한다. 무등산권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이후 2023년에 이어 2026년 두번째 재인증에도 성공,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조사에선 만족도 또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과 여행 비용 등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됐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 의향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등금을 매기기 어려운 고귀한 산'으로 불리운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짜 보물이자 국가적으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귀한 자원이다. 낡고 슬럼화한 상가를 방치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공원 바깥의 생태문화마을 이주단지 조성이 미뤄지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꾸준히 만나 소통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등산객들은 당분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변 통제도 유지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등산 원효지구 정비는 당초에 지난해 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했다. 보상금을 받고도 갈 곳이 없다며 버티면서 수년째 표류돼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완벽한 생태 복원에 더 탄력을 불어 야 할 것이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오해」 - 심보선

나는 오랫동안 배려의 그림자를 키웠다 그것은 내 몸의 윤곽만큼 온기를 지닌다 그러나 참 이상도 하지 사람들은 찬바람이 나로부터 불며 훈풍은 자연의 법칙이라 여긴다 그누가 그림자의 따뜻한 속삭임을 들었는가 그누가 그림자의 깊은 정에 끌렸는가

-- 종락 --

산다는 것은 오해의 연속이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는 내 심장을 오해하고 내 심장은 생을 더듬거리며 어둠까지 달린다 오해로 인해 사물과 인간은 아름다움을 하루도 간직하지 못한다 그것은 참 이상하고도 슬픈 일이다 - 출처: 『네가 봄에 싸이자 속으로 생각했던』, 아침 달, 2025.

*햇살이 가져온 온기만을 측정해서는 세상의 온기를 알 수 없다. 언제나 조금 더 따뜻하거나 조금 덜 따뜻하다. 멀리 있는 달과 별을 쬐며 날아온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나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그림자는 움직인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그 일이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자가 속삭일 때마다 오해가 불꽃 일어나고, 햇살이 남았는데도 그림자의 윤곽이 차가워지고 햇살이 떠났는데도 따뜻해진다.

그렇다고 모두 그림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림자가 가만히 있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고 슬프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

<천세진 시인·비평가/편집 <초록의자> 주간>

독자투고



지난 5월5일 새벽, 광주에서 여고생의 소중한 생명이 무차별 범죄에 희생됐다. 교제 거절에 대한 분노로 죄 없는 학생을 표적으로 삼은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왔다.

경찰은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너진 일상의 회복, 경찰·시민 함께 지킨다

학교 및 학원가 등 순찰 강화, CCTV 사각지대 정밀점검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전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간절하다.

첫째, 스톱키나 협박 등 범죄의 징후를 목격하거나 겪으신다면 주저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사

회적 안전망'의 주인이 돼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경찰의 단호한 법 집행과 시민의 깨어있는 관심이 합쳐질 때 완성된다.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에 다시는 그날의 새벽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맞잡고 우리 동네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정용대·보성경찰서 별교파출소>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